

## 조선시대 최후의 국수(國手) 창남(滄南) 백남규(白南奎)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백영기



[사진1] 백남규(白南奎) 국수

### 글머리에

나는 바둑에 관해서 문외한이지만 어렸을 때 가족들로부터 당숙인 창남(滄南) 백남규(白南奎)[사진1] 국수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공직을 퇴임하고 나서는 인터넷과 자료를 통해 백남규 국수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고 조선조 말기의 바둑 인물사(人物史)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바둑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는 당숙을 “진위(振威) 아저씨”라 지칭하였다. 이는 당숙의 마지막 관직이 진위(지금의 평택) 군수였기 때문

이다. 극도로 혼란했던 조선조 말기에 진위 군수직까지 역임하면서 바둑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지만 청백리로 알려질 만큼 집안 살림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한다. 가족들에게 들었던 바로는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자 군수직을 내던지고 빈손으로 담배대 하나만 달랑 들고 귀향한 후에는 전국을 떠돌거나 서울에 머물면서 바둑만 두었기에 두 형제 중에 장남이면서도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아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백남규 국수는 재위 시절에 고종임금의 어전에서 선배격인 김만수(金萬壽) 국수와 대국하면서 이를 관전하던 고종이 점심 식사를 거르게 하였다는 전설로 유명했다. 조선조 말기(고종36년)에는 일본의 20대 젊은 프로기사 가리가네 준이치(雁金準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한일 간에 최초의 대국을 하였다는 기록이 그 당시의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있다.<sup>1)2)3)</sup>

백남규 국수에 관한 이야기는 1980년대까지 바둑 관계 월간지나 신문지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당시에는 백남규 국수의 생전(1929년 이전)에 직접 대국한 경험이 있거나 알고 지내던 바둑 애호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둑인들이 월간지나 신문에 기고하였지만, 지금은 작고 하거나 바둑계에서 은퇴하여 노사초(盧史楚, 1875~1945) 국수 이전의 백남규 국수나 김만수(金萬壽) 국수 등 조선조 시절의 국수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에 찾아본 자료를 종합해보면 김만수 국수 이후 백남규 국수는 적어도 189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초까지 조선의 일인자로 널리 인정받았던 것 같다.<sup>4)</sup> 그는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강탈되고 일본의 통치가 노골화되자 벼슬을 던져버리고 바둑으로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방랑생활로 조선조의 최후를 장식한 비운의 국수가 되었다.

백남규 국수의 뒤를 이어 일제 강점기에는 고령(高靈) 출신의 윤경문(尹敬文)

- 1) 권경언: 韓國바둑人物史, pp.275~283, 재단법인 한국기원, 1995.
- 2) 랑국국슈: 독립신문, 11월 2일자 3면, 1899.
- 3) 이 청: (발굴기사) 독립신문 그리고 백남규, 오로바둑  
(www.cyberoro.com>column/column\_view.oro?column) 8월 14일, 2009.
- 4) 中外日報: 全朝鮮의 高手, 2월 5일자 2면, 1926.

국수를 비롯하여 성주(星州)의 권병욱(權秉郁) 국수, 대구의 채극문(蔡極文) 국수, 경남 함양(咸陽)의 노사초(盧史楚) 국수 등이 알려져 있다. 노사초(盧史楚) 국수는 백남규 국수로부터 바둑을 배웠으며 30세가 지나서야 바둑에 정진하게 되었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국수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의 후반에 조선의 일인자로 군림했다.<sup>5)</sup> 해방 이후에는 조남철(趙南哲), 김인(金寅), 조훈현(曹薰鉉), 서봉수(徐奉洙), 이창호(李昌鎬), 이세돌(李世乭) 등 많은 국수들이 탄생했다.<sup>6)7)</sup> 조남철(趙南哲) 국수는 1937년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기타니 미노루(木谷 實) 7단의 지도를 받고 1944년에 귀국하여 해방 후의 우리나라 바둑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국기원의 모태가 되는 한성기원을 설립했으며, 세계의 흐름에 따라 바둑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 고유의 바둑인 순장(巡將)바둑의 규칙을 일본식의 현대바둑으로 맞추어 개정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sup>8)</sup>

나의 당숙 백남규 국수는 조선조 말기에 의정부주사(議政府主事) 시절부터 진위군수 시절까지는 물론, 관직에서 퇴임한 후까지도 바둑의 국내 제일인자로 인정받았던 것 같다. 의정부주사 시절에는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가 한글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국문본 “사민필지”』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로 출간하고 이를 교과서로 사용하게 하는 등 조선조 말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sup>9)10)11)</sup> 이에 백남규 국수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바둑 애호가를 비롯하여 한국의 근대교육사 연구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

---

5) 권경언: 東岡漫筆, 노사초국수 이야기, 월간 바둑 8월호, 1987.  
 6) 이시헌: 日帝때 『亡國恨』 달래려 많은 棋士 나와, 名對決<103>, 동아일보 6월 2일, 1982.  
 7) 국수전(國手戰):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2022).  
 8) 안성문: 한국바둑을 빛낸 국수7인 -제1편 조남철 (上), 월간 바둑 1월호, pp. 43~53, 2019.  
 9) 양보경: 외국인이 쓴 세계 지리서《사민필지》, 오늘의 도서관, 11월호, 2018.  
 10) 이원순: 사민필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11) 백남규·이명상 지음, 김형태·고석주 옮김: 한문본 역주 『사민필지』 소명출판, 2020.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백남규 국수의 바둑에 관한 이야기는 20대 청년시절 백남규 국수에게 6점으로 지도를 받았다는 고(故)배상연(裴相淵) 3단 등 바둑계의 원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권경언(權慶彦) 프로기사 겸 작가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바둑 야화(夜話)> 제(第)47화(話) “백남규 국수(白南圭國手)”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매체에 많이 의존하였다.<sup>12)</sup>

## 1. 백남규(白南奎) 국수의 가족사

백남규 국수는 문경공(文敬公)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의 12대손이다. 파보(派譜)로 보면 수원백씨(水原白氏) 문경공파(文敬公派)는 창평공계(昌平公系)와 당산공계(棠山公系)로 나누어지는데 창평공계에 속한다. 문경공파는 휴암공파(休庵公派) 또는 충숙공파(忠肅公派)라고도 한다. 수원백씨 대동보(大同譜)를 보면 백남규(白南奎)국수의 자(字)는 송서(宋瑞), 호(號)는 창남(滄南)이며, 헌종(憲宗)16년(己酉, 1849년)에 부친 백낙성(白樂性), 모친 광주안씨(廣州安氏)의 장남으로 태어나 향년(享年) 80세로 일제 강점기인 1929년 11월 24일(음력)에 작고하였다[사진2].

많은 바둑인의 기록이나 투고문을 보면 본명인 한자명 백남규(白南奎)를 남녝 남(南)자, 흘 규(圭)자로 잘못 쓰고 있으며, 그의 고향이 부여 또는 당진으로 쓰여 있으나, 본명은 남녝 남(南)자, 별 규(奎)자이고 고향은 부여(扶餘)가 정확하다. 출생연도는 1855년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보다 6년이 빠른 1849년이다. 출생지의 자세한 행정구역명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窺岩面) 신리(新里)이다. 부소산(扶蘇山) 낙화암 위의 백화정(百花亭)에서 바라보이는 금강(백마강) 건너의 산 아래 작은 동네(지금은 없어짐)로 옛 이름이 왕흥리(旺興里)로 추측되는 “왕안이” 또는 “왕은이”란 발음으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규암면(窺岩面) 신리(新里)에 통합되었다. 옛날 백제시대에 왕흥사가 있었던 유적지로 지금은 부여왕흥사

---

12) 권경언: 바둑夜話(276)~(286), 경향신문 7월30일~8월13일자, 1974.



상을 떠나 작은 손자 완현(完鉉)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되어 국수의 사촌동생인 나의 아버지(남벽(南壁))가 보살피면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까지 보냈다고 들었다.

남규 국수의 5년은 모두 명문가로 출가시켰는데, 둘째딸은 서울의 명문가인 유옥겸(兪鈺兼)과 혼인을 하였다.<sup>13)</sup> 유옥겸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사교과서(西洋史教科書)”를 편찬하여 출간하였으며 18세에 중등외국지리(中等外國地理)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908년~ 1911년에 “서양교수법(西洋教授法)” “간명교육학(簡明教育學)”, “소학교수법(小學教授法)”, “동양사교과서(東洋史教科書)”, “정선법학통론(精選法學通論)” 등을 편찬하여 출간한 선각자(先覺者)였다.<sup>14)</sup> 그의 삼촌(叔父)이 유길준(兪吉濬)과 유성준(兪星濬)이고, 유억겸(兪億兼)과 유각경(兪珪卿)은 그의 사촌(從弟, 從妹)이다. 중등외국지리 교과서의 저술은 1895년에 그의 빙부(聘父)인 백남규 국수가 번역 저술한 세계지리학 교과서인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출간한 교과서는 모두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편집하였다. 그는 기호학회(畿湖學會)의 창립에 참여하고 학생 교육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39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수의 장손 종현(宗鉉)은 기계유씨(杞溪兪氏)와 결혼하였으나 18세에 요절하였기에 자녀가 없어 둘째 손자인 완현(完鉉)의 둘째아들 승민(承旻)을 숙부인 종현(宗鉉)의 양자로 입양하였다. 따라서 족보에는 국수(南奎)의 직계 종손이 완현(完鉉)의 차남인 승민(承旻)으로 되어있다.

국수의 동생인 나의 둘째 당숙(南斗)도 조선조 말에 벼슬을 하여 탁지부주사(度支部主事)로 공직(公職)에 근무하였으나 젊은 나이(35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에 집안 형편도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딸 하나만 낳고 득남을 하지 못하여 나의 큰형 용기(瑢基)를 양자로 입양하였다[사진2]. 내가 어려서 자주 들었던 “진위아저씨(남규 국수)는 군수를 지내시다가 경술국치 직전에 벼슬자리를

13) 水原白氏大同譜(丁丑版): 第十卷文敬公派(昌平公系), 水原白氏中央花樹會, 1997.

14) 유옥겸(兪鈺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22>

내려놓고 귀향하셨으나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바둑을 두면서 방랑생활을 하셨다”는 뜻은 국수 당숙의 가족은 물론, 젊은 나이에 작고한 국수 당숙의 동생인 남두(南斗) 당숙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사촌 동생인 나의 아버지가 돌보게 된 것으로 보아도 이해가 된다.

백남규 국수는 내가 출생하기 3년 전인 1929년에 작고하였으며, 그의 유일한 손자인 나의 재종질(再從姪) 완현(完鉉)은 1914년생으로 나의 아버지가 뒤를 보살폈기 때문에 나의 집에서 중학교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1940년경) 규암면(窺岩面) 나복리(羅福里)에서 나와 한 가족으로 지냈다. 완현(完鉉)은 중학생 시절인 1930년 1월에 항일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대전지검 강경지청에서 1930년 2월에 석방된 후, 경신(敬新)중학교와 연희(延禧)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최근에 완현(完鉉)의 차남인 승민(承旻)으로부터 부친의 항일학생운동에 참가한 공적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 인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인터넷으로 “독립 유공자조서”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sup>15)</sup>

나는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에 이리농림(裡里農林)학교에 입학하여 6.25동란 중이던 1951년에 졸업과 동시에 도립(道立) 이리농과대학(입학 다음해인 1952년에 국립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에 입학하였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4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에 컴퓨터를 배우고 한가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모르고 지냈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진위(振威)아저씨” 백남규 당숙에 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이었다. 조선조 말기에 조선 바둑의 국수로 이름을 크게 떨친 사실이나 관직에서 이룩한 업적 내용도 대부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진위(振威)아저씨”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지 못한 일이 아쉽고 안타까운 일로 후회가 막심하다. 6.25동란이 일어나기 전인 초·중등학교 시절의 기억으로는 큰형(용기(鎔基))이 사용하던 사랑방 한쪽의 골방에 수북하게 싸여

---

15) 공헌전자자료관: 백완현,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2022.

있던 한서와 낙관 등의 유물이 있었다. 여름이 되면 안마당에 명석을 펴놓고 한서를 햇볕에 말리는 행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6.25동란 이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러 차례의 이사를 하게 되면서 유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모두 소실되고 찾을 길이 없다 하니 언제 어떻게 소실되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남규 당숙의 양손(養曾孫子)이며 직계 종손인 승민(承旻)에게 거듭 문의해 보니 별다른 유물은 없고 국수 할아버지가 군수 시절의 관복을 입고 전신을 촬영한 독사진이 있다고 하기에 제공받아 상반신 부분만을 복사하여 글머리 앞에 첨부하였다.

뒤늦게나마 남규 당숙에 관한 업적 중의 하나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던 사실은 글머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의정부편사국주사(議政府編史局主事) 시절에 미국의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한글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학(世界地理學) 교과서 『스민필지』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한문본『사민필지(士民必知)』”를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최근에 출간된 ‘백남규·이명상 지음, 김형태·고석주 옮김 : 한문본 역주『사민필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책의 지은이 소개란에는 호가 송서(宋瑞)로 되어있는데 이는 사민필지의 원본 사진에 “조선의정부주사백남규송서(朝鮮議政府主事白南奎宋瑞)”로 되어 있어 호를 송서로 착각한 것 같다. 송서(宋瑞)는 자(字)이며, 호(號)는 창남(滄南)이다. 공동번역자인 이명상은 왕족이며 자(字)가 경소(景霄)이고 호는 해운(海雲)이다.

## 2. 조선조 말기의 국수(國手)가 되기까지

백남규 국수의 성장이나 바둑의 수련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알 길이 없었으나 권경언(權慶彦) 프로그사겸 작가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바둑 야화(夜話)> 제(第)47화(話) “백남규 국수(白南圭國手)”에 기술한 내용이 있어 그 일부를 옮겨 보기로 한다.

권경언 프로기사가 한국기원에서 바둑을 잘 두는 90노옹(老翁) 모씨(某氏)로부터 백남규 국수를 잘 알고 바둑도 여러 판 두었다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분은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신기(神棋)였으며, 바둑을 두는데 자기말도 완생을 아니하고 상대방마도 완생을 시켜주지 않는 「피아불완생(彼我不完生)은 백남규지기법야(白南圭之棋法也)」라는 말이 유행했었지”

또한 “백남규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들 그의 바둑에 감탄하였고 흥선 대원군 시대의 국수 김만수(金萬壽) 이후에 우리나라 바둑계를 몇십 년 동안 주름 잡았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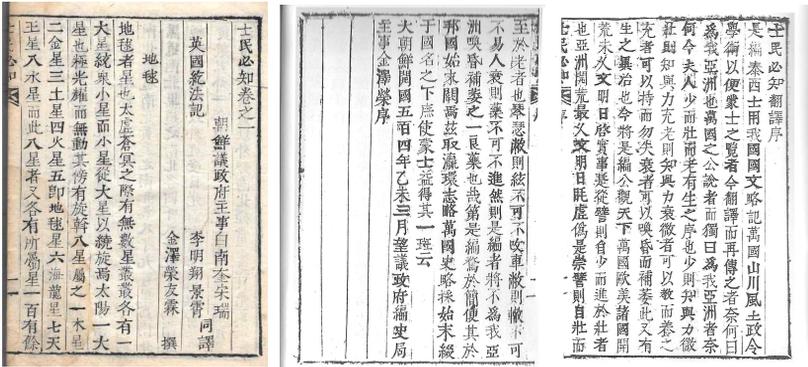
권경언 작가가 쓴 <바둑 야화(夜話)>에는 백남규 국수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어렸을 때는 글재주가 뛰어나 신동(神童)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15세에 이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모두 배우고 당송(唐宋) 팔대가(八大家)의 문장과 이두(李杜, 李太白과 杜甫)의 시를 읽고 있었다 하니 과연 뛰어난 재주였던 모양이다. 그가 11세 되던 해에 그의 부친은 어린 아들에게 「바둑이란 선비들이 두는 점잖은 오락이니만큼 글 배우는 여가에 바둑을 배워둬라」고 하면서 바둑을 두는 기초요령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몇 달 후 백남규 부친의 바둑친구인 김진사(金進士)가 찾아와 내기바둑이 벌어졌는데 어린 백남규는 그 판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다. 바둑이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판 위에 흑(黑)돌과 백(白)돌이 뽁뽁이 들어찰을 무렵 백남규 부친은 대마가 죽게 되어 이마와 콧등에 땀을 흘리면서 대마를 살리려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때 옆에서 구경하던 소년 백남규가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 사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 두세요」 이 말을 듣고 두 대국자는 깜짝 놀라며 소년이 가리킨 곳을 살펴보니 과연 기사회생의 절묘한 수단이 그곳에 있지 않은가. 김진사는 소년의 재주를 크게 탄복하며 물었다. 「어린애가 바둑을 잘 두는군요. 언제 가르쳤습니까?」 「글쎄요, 몇 달 전 기초 요령만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이런 묘수를 보는군요.」 「그래요? 어디 한번 시험해봅시다」 김진사는 백남규 소년과 바둑을 두어보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소년의 기력(棋力)이 이미 상당히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던 후부터 백남규 부친은 어린 아들의 재주를 기특히 여겨 학문의 여가에 틈틈이 바둑을

가르쳤으니 이로 말미암아 백남규는 몇 년 후 충청도에서 제일가는 도기(道棋)가 되었고 학문도 크게 진보하여 후일에 진사급제(進士及第)를 했으며 진위 현감(振威縣監)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를 백국수(白國手) 또는 백진위(白振威)라 불렀다. 그러나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정치는 부패해져 날이 갈수록 민생고가 더해가자 백남규 국수는 벼슬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바둑을 두면서 세월을 보낸 한유기객(閑遊棋客)이 되었다.”

권경언 작가는 “백남규 국수는 김만수(金萬壽) 국수 이후, 윤경문(尹敬文) 국수 이전에 조선에서 으뜸가는 국수중의 국수였다”고 하였다.

### 3. 최초의 지리교과서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 발간



[사진3]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의 번역서문(翻譯序文)과 본론 첫째 쪽 원본 사진

1886년(고종 23년) 조선의 초청으로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취임한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eezaleel Hulbert, 紇法, 1863~1949)가 1889년에 한글로 지어서 교재로 사용한 세계지리이자 최초의 지리교과서로 알려진 “『소민필지』”를 1895년에 의정부주사(議政府主事) 백남규와 이명상(李明翔)이 상부의 명으로 “사민필지『士民必知』 한문본(漢文本)”을 저술(著述)하여 조선의정부 편사국(朝鮮議政府編史局)에서 출간하였다.<sup>16)</sup> 최근에 “한문본 역주 『사민필

지』를 간행한 김형태·고석주교수는 “한글본을 바탕으로 한문본을 출간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전례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한역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새로운 서술로 보아도 될 만큼 한글본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는 우리 아시아를 위하여 동아시아 보편문자인 한자로 저술하였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은 순수한 번역에 충실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체계로 정리하였으며 출간 후에 교과서로 사용함으로써 개화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한문본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간편함에 힘썼고, 그 나라의 처음과 끝에서 빠진 것은 외국에서 간행된 『영환지략』(瀛環志略)과 『만국도지』(萬國圖志)에서 얻었다”고 하였다. “한문본 『사민필지』”는 1책 2권으로 권지일(卷之一)과 권지이(卷之二)로 구분되어있다.

사민필지의 번역서문은 이례적으로 번역자가 아닌 의정부편사국주사(議政府編史局主事) 김택영(金澤榮)이 썼다. 김택영은 후일에 “한국역대소사(韓國歷代小史); ”창강고(滄江稿)“ 등의 저서를 남긴 조선조 후기의 한문학(漢文學) 대가(大家)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문본 『사민필지』”는 1896년 이후 학부도서로 출간돼 학부(지금의 교육부)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의정부(議政府)는 조선시대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이며, 편사국은 갑오개혁 이후 1894년에 역사편찬을 위해 세운 부서로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4인으로 구성되었다.<sup>17)</sup>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 제1권(卷之一)의 본문 첫 페이지에 영국 험버트 기술(英國紘法記), 조선의정부주사(朝鮮議政府主事) 백남규송서(白南奎宋瑞), 이명상경소(李明翔景霄) 동역(同譯, 함께 번역), 김택영우림(金澤榮友霖) 찬(撰)이라 쓰여 있다. 호머 험버트는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저술하였지만, 한자를 널리 사용하던 우리나라 선비들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한자권의 지

16) 최보영: 『사민필지』의 간행·漢譯과 근대지식의 변용, 역사와 세계, 제57집 pp. 181~206, 2020.

17) 의정부 편사국: 의정부(대한제국), 나무위키: 대문, Google 검색, 2020.

식인을 위하여 한문으로 번역하여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학 교과서를 발간한 것이다.

나라가 기울어가면서 뒤늦게 근대화를 지향하던 조선조 말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를 한글로 저술한 『스민필지』와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한문본 『사민필지』를 120여년이 지난 최근에 한국학의 지적 기반 성찰을 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서 책으로 출간한 김형태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 한문본 『사민필지』는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를 결부시킨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의 확장과 보급을 위하여 동아시아 보편문자인 한자(漢字)를 활용해 한글본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체계로 유서(類書) 편찬의 전통을 새롭게 탄생시킨 저술이며 좋은 전통으로의 회기라는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문본 『사민필지』는 “국문본 『스민필지』를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책명과 기술하는 대상이 같을 뿐 전혀 다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본 세계지리 교과서로 귀중한 역사적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사민필지(士民必知)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최근에 김형태교수와 고석주교수가 옮겨 출간한 “한문본 역주 『사민필지』”와 “국문본 역주 『사민필지』”<sup>19)</sup>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중추원 주사(中樞院 主事) 시절

##### 1) 대한예전(大韓禮典) 편찬과 고종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백남규 국수는 한문본 「사민필지」를 간행한 후인 1897년 9월 4일자로 의정부 편사국(議政府編史局)에서 의정부중추원(議政府中樞院)으로 자리를 옮겼다.<sup>20)</sup> 백남규 국수가 중추원주사 시절에 기여한 공로 가운데 하나는 고종이 1897년에

18) 김형태: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의 유서(類書)적 특성연구, 洄上古典研究 제 70집, pp.193~224, 2020.

19) 호머 헐버트 지음·이명상 지음, 고석주·김형태 옮김: 국문본 역주 『사민필지』 소명출판, 2020.

20) 승정원일기: 3088책, 고종34년 9월 4일, 1897.

선포한 대한제국의 국가의례를 규정한 “대한예전”의 편찬에 참여한 일이다.

대한예전은 고종이 1897년에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거행하는 모든 의례의 절차와 규정을 정한 법전이다. 1897년 6월에 사례소(史禮所)를 설치하고 의정부 참정 겸 내부대신 남정철(南廷哲)을 사례소 위원으로 임명하고 3품 이종원(李種元) 등 3명을 부원으로, 그리고 위원과 부원을 보좌할 직원과 부원을 충원하였는데, 중추원 주사 백남규(白南奎)는 과원으로 임명되어 대한예전(大韓禮典)의 편집 사무에 참여하였다. 대한예전은 약 1년 6개월 만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권1부터 권10까지 모두 10권의 유일본으로 장서각(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남아있다.<sup>21)</sup> 그 밖에 중추원주사(中樞院主事) 백남규가 조상을 추가로 높이는 의식과 신하에게 작위를 반포할 것에 대해 고종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내용이 고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중추원주사 백남규가 올린 상소문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있는데 그 번역문이 있기에 번역문 전문(全文)을 아래에 옮겨놓는다.<sup>22)</sup>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폐하(陛下)는 나라가 밝고 화평할 운수를 지니고 하늘이 내리는 명령을 받들게 되어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전통을 높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굽어 따라서 대황제위(大皇帝位)에 오른 지 오늘까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훌륭한 정사를 펴고 인(仁)을 베푸심에 문헌을 상고하여 예의를 의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 그 규례를 넓히고 징험을 밝히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큰 이름에 걸맞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춤추며 기뻐하였으니 아! 훌륭합니다.

그러나 큰 전례와 큰 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거행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종(祖宗)을 추숭(追崇)하는 예이고, 하나는 신하에게 작위(爵位)를 반포하는 제도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전례와 이 제도는 예로부터 왕업을 창건하고 왕통을 계승해 온 나라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급선무로 여겼으니,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은혜로운 시책을 넓혀 나라의 체면을 존중하고 후대에 전해 내려오면서 미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21) 國譯大韓禮典: 보도자료,민속원, 2018.

22) 고종실록 37권: 中樞院主事白南奎疏略, 1월 3일 고종35년, 1898.

당당한 제국으로서 광휘가 세상에 미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오직 요사이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인봉(因封)을 당하여 폐하는 슬픈 회포가 그지없고 만백성은 허전한 마음이 간절하였으므로, 더없이 중하고 엄한 의장 물건을 갖추고 반드시 정성과 조심성을 다하여 정리를 폈습니다.

상하(上下)가 경황없는 중에 겨우 장례만을 치러 이런 의식과 제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 부알례(祔謁禮)를 이미 거행하였고 연제(練祭)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폐하가 복잡한 정사에 유의하여 상 주는 규례와 관리 임명 및 파면에 관한 절차 역시 이미 차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종을 추송하는 큰 예와 작위를 주는 훌륭한 제도는 어찌하여 유독 뒤로 미루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서를 상고해 보면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을 왕으로 추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한(漢)·당(唐)·송(宋)·명대(明代)에 와서도 모두 선대를 높이는 것을 영예로운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수(代數)는 많고 적고, 멀고 가까워 비록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묘의식에 대해서는 빛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역사 기록에 밝게 쓰여 있어 증거로 삼아 믿을 수 있으며 상고하여 시행할만합니다.

작위를 봉하는 제도에서 삼대(三代)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漢)나라 때에 와서도 왕(王)과 후(侯)로 등급을 나누고 성(姓)이 다른 사람은 왕으로 하지 않는 제도를 정하였는데, 은택후(恩澤侯) 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신하들 역시 공과 후 등의 작위가 있었는데, 큰 공훈이나 큰 덕에 대해서는 성이 다르더라도 왕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눈 작위를 갖추고 중앙관리로써 금비(金紕) 이상은 개국(開國)·자작(子爵)·남작(男爵)·공작(公爵)·후작(侯爵)이라는 칭호가 있었으며, 때로는 성(姓)이 다른 왕에 관한 작위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에 와서 성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한 것은 단지 태조(太祖)때 공신 몇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공작·후작·백작(伯爵)이라는 세 등급으로 나누어주었으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봉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나라의 후작은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이 있었으나, 명나라에서는 대대로 내려가며 녹(祿)을 주었으며 모두 철권(鐵券)을 주어 대대로 물려주는 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제도는 비록 공훈에 의해서 제정되었지만, 중엽 이후로 높은 반열과 높은 품계는 오래 봉하여 주면서도 녹은 주지 않고 후손들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 법이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략적인 것인데, 성(姓)이 같은 왕이 없는 때가 없었으므로 갖추

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즉 조종을 추승하는 예를 거행한 후에야 왕의 업적을 밝히고 효성을 다할 수 있으며, 작위를 봉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등급의 위엄을 명백히 하고 근본 원칙을 존중할 수 있게 되니, 전 세대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여러 나라들에 광휘를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거행하는 절차가 지극히 중대하니, 지난 시기의 문건을 널리 상고하고 여론을 널리 들어봐서 성상의 총명함에 도움을 주고 성상께서 보시도록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칭호를 높이는 데 있어서 몇 실(室)에 그쳐야 하며, 누가 왕으로 될 수 있고 누가 공작, 후작으로 될 수 있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하가 감히 외람되게 먼저 청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폐하(陛下)는 타고난 총명으로 고금(古今)을 환히 살피고 있으니 이러한 대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극히 정밀하고 결함이 없는 하나의 척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큰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훌륭한 의식을 속히 거행함으로써 온 나라의 기대에 맞게 할 것이며 한 시대의 의례 제도를 정하소서.

오늘 이 큰 전례와 큰 제도는 황제 조정의 체통에 있어서 제일 급하다는 것을 신하들치고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처지가 미천하면 혹 엄중한 일로 여겨 아뢰지 않으며, 처지가 귀하거나 가까운 터이면 혹 혐의를 피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시일을 지체시키고 의례를 갖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법을 아는 사람들의 비평을 초래하고 이웃 나라 사람들의 조소를 야기하고 있으니, 신은 혼자서 개탄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건대 신의 관직은 사례소(史禮所)의 일원이므로 비록 현재 직무는 없다 하더라도 명예와 의리를 생각할 때, 응당 나라의 의식 절차에 대하여 갖추어 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한 가지 견해를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유의하여 밝게 살펴 주소서.”

## 2) 최초의 한일 바둑 대결

충추원주사 시절에도 바둑은 국내 제일의 국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프로기사가 양국의 국수 대결을 제안했을 때 백남규 국수가 응전한 것으로 보아 짐작이 된다. 그 시절에 일본의 20대 젊은 프로기사 가리가네 준이치(雁金準一, 1879~1959)가 한국의 국수와 겨루고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백남규국수와 1899년 10월 29일 밤에 대국을 한 한일 양국 최초의 대국이 서재필(徐載弼)이 발행한 1899년 11월 2일자 독립신문(한글신문)에 게재되어 있

다. 신문 기사는 “량국국수: 일본 응금준일씨는 바둑 잘 두는 국수로 유명하다는 이인데, 대만에 와서 국수를 찾아 한 번 자웅을 결단하고자 하더니 한국 국수 백남규씨와 더불어 진고개 (여?)관에서 10월 29일 밤에 대국하여 두었는데 백씨도 또한 잘 두었다더라.”로 되어있다. 안영이(安玲二) 작가의 『다시 쓰는 한국바둑사』에는 일본의 자료인 1953년 6월호의 《이고(圍碁)》 잡지에 연재된 가리가네(雁金)의 기록인 <방외기화(方外棋話)> 가운데 “한국행”의 내용을 인용하여 “서울의 일류여관 파성관(巴城館)에서 조선 당대의 고수인 백남규씨와 대국하여 조선바둑 2점을 접어주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가리가네는 “백씨에게는 따로 스승도 없고 오직 독학으로만 그 같은 기력을 갖게 되었다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가리가네 준이치는 그 후에 일본의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며 1959년 제자들에게 의해 명예9단으로 추대되었다.<sup>23)</sup> 백남규 국수는 어려서 글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바둑의 기초를 배웠지만, 당시 이름을 떨치던 국수나 고수(高手)의 가르침을 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가리가네의 기술과 같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국수의 자리에 오른 것 같다.

그가 언제부터 국수로 인정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전해오던 전설로는 고종임금이 보는 앞에서 김만수 국수와 백남규 국수가 대국을 했는데 첫판은 김만수 국수가 한집을 이기고 다음 두 판은 백이 나왔다. 승부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고종임금이 점심을 굶고 구경한 후에 두 사람에게 똑같은 국수의 칭호를 내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한나라에 한 사람의 국수만이 존재했으나 이때부터 두 사람 이상의 국수가 나왔다는 내용이 권경언 선생의 『한국바둑인물사』에 기재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을 전문으로 두거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점잖은 선비들의 풍류로 여겼기 때문에 개인이 바둑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나 방법이 거의 없었다. 바둑을 도락으로 즐기면서 개인의 경험과 노력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실력의 기준이 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나 단급제도도 없었고 기보를 남기는 일조차 없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23) 안영이: 다시 쓰는 한국바둑사, pp.30~31, pp.99~101, 2005.

우리나라 바둑이 소위 사랑방 바둑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무렵, 일본에서는 300년 전의 에도시대부터 단급제도를 제정하고 전문기사들에게 국록(國祿)을 주면서 바둑을 육성하고 있었기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바둑에 비하면 크게 전문화되고 발전하였음이 당연하다. 이런 환경에서 20세의 젊은 일본의 전문기사 가리가네와 공직에 근무 중인 50세의 백남규 국수와의 대결은 가리가네의 승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최초의 한일대국이 조금이나마 기록으로 남아 한일 양국의 바둑실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구전으로나마 31수까지의 기보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한일 양국 첫 대국의 기록이 당시 신문에 게재되어 있어 바둑사에 남아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 5. 진위군수(振威郡守) 시절

### 1) 한남흥학회(漢南興學會)의 조직과 교육지원

백남규 국수는 1904년 9월 2일에 중추원주사직에서 진위군수 발령을 받았다.<sup>24)</sup> 이 무렵에는 정치가 부패하고 세상이 어지러웠던 시절이라 군수직에 전념하기보다는 바둑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임기간 동안 군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선정을 베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1904년 군수에 취임한 다음 해인 1905년 11월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하려고 사직서를 보냈던 것 같다. 1906년 9월 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원문(原文)과 이를 해석한 내용을 여기에 옮겨 둔다.

『振民願留』

“振威郡民人等이 内部에 請願하기를 本郡守 白南奎氏가莅以以來로 廉明茲惠

24) 승정원일기 3175책, 고종41년 9월 2일, 1904.

헝더니 今忽呈辭에 期欲賦歸헝니 如乳兒之將失慈母헝야 裏足來訴헝니 勿許辭  
狀헝야 以爲郡民케헝라헝엇더라.”<sup>25)</sup>

『진위군민(振威郡民)의 사임(辭任) 만류 민원』

진위군민들이 내부(내무부)에 청원하기를, “본군 군수 백남규씨가 부임 이래로  
청렴(淸廉)하고 밝고 일을 잘하고 은혜롭더니 이제 문득 사직서를 올려 돌아가  
고자 기약한다하니 (군민들이 마치) 어린이들이 장차 인자한 어머니를 잃어버리  
려는 듯, 발 벗고 찾아와 호소하는바, 사직서를 허락지 말고 군민을 위하게 하소  
서라고 하였더라.”

이 신문기사에 의하면 백남규 군수가 1906년 9월 이전에 군수직을 사임하려  
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군민들이 사임을 만류하는 민원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  
다. 조선조 말기인 당시에는 탐관오리도 많았을 터인데, 그는 청렴한 공복으로  
선정을 베풀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본인의 사의가 군민들의 민원으  
로 한동안 보류되어서인지 약 10개월 후인 1907년 6월 7일에 의원면직이 된 것  
으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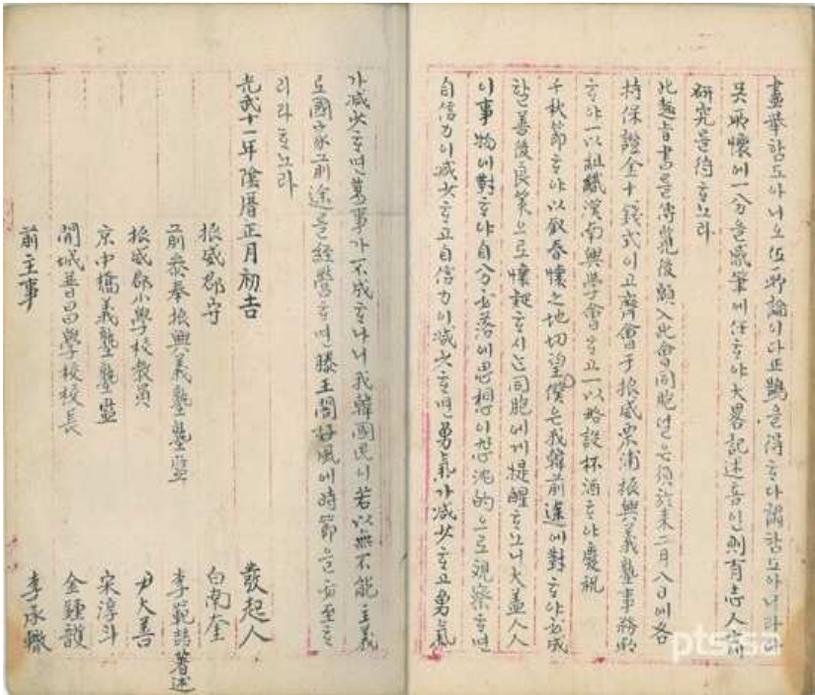
진위군수 재직 중의 기록으로는 1907년 진위군(振威郡) 고덕면(古德面) 울포  
리(栗浦里)의 전(前) 참봉(參奉) 이범철(李範喆)이 백남규 군수와 상의하여 한남  
흥학회(漢南興學會)를 조직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있다.<sup>27)</sup>

평택시문화원(平澤文化院)이 발굴한 ‘한남흥학회(漢南興學會)취지서(趣旨  
書)’의 사진을 보면 광무 11년(1907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初吉)에 작성하였으  
며, 발기인 란의 첫 줄에 진위군수 백남규, 둘째 줄에 취지서를 저술한 전(前)  
참봉(參奉)이며, 진흥의숙(振興義塾) 숙감(塾監)인 이범철(李範喆)의 이름이 기  
재되어 있다[사진4].

25) 振民願留: 皇城新聞, 9月3日字 2面, 1906.

26) 승정원일기 3209책, 고종44년 6월 7일, 1907.

27) 是兄是弟: 大韓每日申報, 2月 23日字 3面, 1907.



[사진4] 한남흥학회(漢南興學會) 취지서(趣旨書)

이범철은 ‘한남흥학회 취지서’에서 세계 열강들이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 제도를 강조하였으며, 만일 한 개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할 때는 국가가 전력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는 이범철의 근대적 교육관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실력양성 운동인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육운동 또한 급격히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1906년 반포한 고종의 흥학조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28)</sup> 호남 출신 인사들이 1907년 7월에 서울에서 결성한 호남학회(湖南學會)를 비롯하여 1908년 1월에 관서(關西)·해서(海西)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서 조직한 서북학회(西北學會), 같은 시기에 서울, 경기, 충청지방 인사들이 서울에서 조직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1908년 3월에 강원도지방 인사들이 서울에서 조직한 관동학회(關東學會)

28) 장연환: 평택역사-⑦평택의 근대 교육(1), 평택시민신문, 1913. 2.

등도 활발히 활동하였지만, 한남흥학회는 이들 학회보다 적어도 5개월 이상 앞서 시골인 진위 지방에서 조직한 것을 보면 이범철의 투철한 교육관과 남다른 교육열, 그리고 백남규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었을 것이 예상된다. 백남규 군수는 이 군내에 공립소학교를 새롭게 고쳐 짓고, 빠듯한 정부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 1천 3백 41량(兩)을 미리 당겨 보내달라고 학부(교육부)에 무리하게 요청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군내의 학교 지원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sup>29)</sup> 그 밖에 1907년 2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던 국채보상금(國債補償金)의 모금 운동에도 참여하여 이십환(二十圓)을 출연(出捐)한 기록이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게재되어 있다.<sup>30)</sup> 진위군수 시절의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교육지원활동 등에 관하여는 평택시의 향토학자 장연환 선생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기록에 남길 수 있었다.

백남규 군수는 진위군수를 사임하기 약 3개월 전에 가자(加資)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기재되어 있다. 가자(加資)는 재직 중의 공로에 따라 품계(品階)가 올라 당상관(堂上官, 정3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다.<sup>31)</sup> 바둑을 점잖은 선비들의 풍류와 도락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지만 국수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도 충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당상관, 통정대부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통한의 심정으로 사표를 내던지고 귀향 후 방랑생활로 소일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29) 經擲公錢: 大韓每日申報, 7月 16日字 2面, 1907.

30)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及額數: 皇城新聞 4月 18日字 3面, 1907.

31) 白南奎 외 加資: 승정원일기 3206책(달초본 141책) 고종 44년, 3월 7일(음력, 양력 4월 19일), 1907.

## 6. 군수직 퇴임 후의 방랑생활

1907년 6월에 진위군수직을 사임한 후에 담뱃대 하나만을 들고 귀향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못하고 바둑을 즐기면서 청빈한 공직생활을 했던 것 같다.

권경언 선생의 『한국바둑 인물사』를 보면 고(故) 배상연 3단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백남규 국수의 이야기로 “노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서울(京城) 다방골 조동휘(趙東輝) 판서(判書)댁의 사랑방과 원서동 이지용(李祉鎔) 대감댁 사랑방에서 주로 손님을 맞았는데 나도 그때 여러 판을 배웠다. 바둑광인 조(趙)대감은 국수들을 잘 접대해 주었으며 국수들의 대국을 구경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며, “그 시절 백국수는 명사들의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있어서 기객(棋客)이 인력거를 잡아타고 백남규 국수 계신 곳으로 안내하라 하면 인력거꾼이 알아서 안내했다”고 한다.” 또한 백남규 국수는 당대 무적의 바둑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지들이 반기어 융숭한 대접을 하여 풍요한 생활을 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에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방랑생활을 하기로 결코 안일하고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나라 잃은 원한과 시름을 달래면서 여러 사람과 바둑으로 소일을 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군수직을 사임한 지 11년이 지난 1918년에 일본의 사이토 겐토쿠(齋藤賢德) 4단이 서울에 왔을 때 전국 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1918년 6월 11일자 매일신보에는 “성황(盛況)의 위기대회(圍碁大會)”라는 제목 옆에 작은 제목을 “근 백명의 귀객이 모혀, 백남규씨도 출석 응전”으로 달고 일본의 사이토 겐토쿠 4단이 출석하였다고 되어있다.<sup>32)</sup> 이때 백남규 국수는 진위군수직을 사임한 지 십여년이 지나 서울에서 방랑생활을 하던 69세의 노인으로서 기력과 체력이 쇠퇴해가는 노인이었으니 사이토 4단과의 대국에서는 크게 패할 것이 예상되었을 것이

---

32) 盛況의 圍碁大會: 大韓每日申報, 6月 11日字 3面, 1918.

다. 이때의 대국 내용은 백남규 국수의 유일한 기보(棋譜)로 남아있다고 한다.

기력이 왕성했던 전성기의 기보가 아니고 노년에 남긴 것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발견한 최고(最古)의 기보라고 하니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기보는 1918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백남규국수와 일본의 사이토 4단이 두 점으로 6월 9일에 대국한 기보로 알려져 있다. 기보는 209수까지만 적혀있고 나머지 끝내기가 생략된 채, “백(白)14호(戶)승(勝)”이라는 결과만 나와 있다.<sup>33)</sup> 권경언 선생은 사이토 4단이 어떠한 기사(棋士)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일본 저명기사 명단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고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일본기원 사람에게 사이토씨에 대하여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알 수가 없다는 회답이 왔다고 하였다. 최근에 필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바둑에 관한 일본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 가(夏)교수의 연구논문에서 “사이토(齋藤賢德) 4단 1926년 6월 29일 뇌일혈(腦溢血)로 모리오카(盛岡)에서 사거(死去). 향년 65세”라는 짧은 기록을 볼 수가 있었다.<sup>34)</sup> 결국 사이토 겐토쿠씨는 1910년대의 일본 프로기사 4단의 실력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일본의 바둑계에서 크게 활약한 저명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백남규 국수가 언제 바둑계에서 은퇴하여 방랑생활을 끝내고 귀향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방랑생활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정도로 총기와 체력이 저하되면서 방랑생활을 끝내고 귀향하여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말년을 보냈으리라 추측해 본다.

## 맺는 글

나의 당숙 백남규 국수는 조선조말(朝鮮朝末)인 헌종(憲宗) 16년(1849년)에 태어나서 일찌기 벼슬길에 올라 현감(縣監, 군수)을 지냈으며, 바둑으로 국수의

33) 權慶彦: 東岡漫筆, 白南圭國手이야기, pp.62~66, 月刊바둑 10월호, 1987.

34) 夏剛·夏冰: 碁源-天授の盤上遊技·人智競技(1), p.25. 立命館國際研究 31-3 p.435, Feb., 2019.

자리에 올라, 수십 년 동안 국내 제일인자로 군림했다. 조선의정부(朝鮮議政府) 주사(主事) 시절에는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를 저술하여 학부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바둑의 국수 자리에 오르고 있을 무렵인 1898년에 일본에서 건너온 젊은 프로기사 가리가네 준이치의 도전으로 최초의 한일대국을 한 기록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인 1918년에 서울에서 개최한 조선의 바둑대회에서 일본의 사이트 4단과 대국한 기보는 국내에서 발견한 기보로는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기보이고 백남규 국수가 남긴 유일한 기보로 기록되어있다. 국록을 주면서 직업적인 프로기사를 양성하던 일본의 젊은 기사들에게 한국의 국수가 패배하였으나 한일 양국 간의 실력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서 바둑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늦게나마 어린 인재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등 현대바둑의 실력 향상에 힘을 쓴 결과로 이제는 세계 최상위권의 바둑 강국이 되었다.

백남규 국수는 중추원주사(中樞院主事) 시절에 대한예전(大韓禮典)의 편집에도 참여하였고, 고종임금에게 조상을 추가로 높이는 의식과 신하에게 작위를 반포할 것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다. 진위군수 시절에는 한남흥학회(漢南興學會)를 조직하여 공립소학교의 개축비 지원 등, 지방에서의 교육활동에 힘을 썼다.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자 사표를 냈으나 군민들이 사임을 만류해달라는 진정서를 상부에 제출하여 사표수리를 유보(留保)시키는 등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사임하기 전에 재직 중의 공로에 따라 당상관인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까지 올랐으나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군수직을 사임하고 바둑으로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방랑생활을 했다는 사실 등 그의 발자취를 챙겨보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백남규 국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9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필자 개인의 힘으로 기록을 찾아서 정리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음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나 잘못 알려진 사실 등은 필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자위한다.

끝으로 백남규 국수의 마지막 관직인 진위 군수 시절인 100여 년 전의 발자취와 그 당시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평택의 향토사학자 장연환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한자 신문의 해독에 도움을 주신 새전복신문 논설고문 임용진(林容進)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 나의 마지막 소망 -

2029년은 백남규(白南奎) 국수 탄생 180주년, 서거(逝去)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바둑계를 비롯하여 근대교육사 분야에서도 학술대회, 기념바둑대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그가 남긴 업적을 기려주기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